

말쥐치, *Thamnaconus modestus*의 양식 가능성 평가

방인철* · 이일로 · 권성민 · 박상용

순천향대학교 생명과학부

말쥐치의 양식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4년 5~6월 인공 생산된 말쥐치 종묘 220,000만 마리(전장: 4~6 cm, 체중: 0.5~0.8 g)를 충남 태안군 남면 당암리(천수만 복단)의 가두리 양식장 3개소에 입식하여 생존율, 성장, 사료효율 등의 자료를 구하여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종묘입식 후부터 출하시까지 양식기간은 4~5개월이었고, 전 양식기간 중 3개소의 생존율은 82~91%로 나타났으며, 5월 28일 입식한 종묘(총 55,000마리)의 경우 입식 1개월째에 11.6 g, 2개월째에 28.4 g, 3개월째에 69.6 g, 4개월째에 85.4 g, 최종 출하시(11월 16일)에 123 g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6월 18일 입식하여 9월말 출하 시까지 평균 72.3 g, 11월 중순 출하시 평균 85.4 g으로 성장하였다. 사료는 주로 냉동 곤쟁이와 냉동 흰배도라치 치어 및 부상사료를 이용하였고, 사료효율은 냉동사료의 경우 약 20% 정도였다. 한편, 7월 5일 55,000마리를 가두리 1개에 입식하여 9월말 경 출하한 A 업체에의 경우, 생존율은 91%, 평균체중 70 g이었으며, 총 3.7톤을 생산하였다. 판매가격은 14,000원/kg으로 총 매출액 5,180만원에서 사료대금(곤쟁이, 흰배도라치 치어 등 총 1,750상자) 650만원, 종묘구입비 1,250만원(단가 250원), 인건비 400만원을 제외하고 약 2,880만원의 경상이익을 창출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최근 돔류(참돔, 감성돔, 돌돔) 등의 어가 하락으로 인해 가두리 양식장에서의 수익개선이 어려운 현실에서 말쥐치는 새로운 양식어종으로 주목되었다.

*Corresponding author: incbang@sch.ac.kr